

경남대, 창의 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의 요람 온·오프라인 혼합형 미래 교육체계 구축



1 공부중인 경남대 학생들
2 경남대 대학일자리센터에서 학생들이 상담하고 있다.
3 경남대학교 전경

분야에 미래형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AI·SW융합대학'을 신설하고, 보건 의료지식과 IT융합기술이 합쳐진 '보건 의료정보학과'를 신설했다.

경남대학교는 1946년 개교와 함께 '지역과 함께하며, 지역에 공헌하는 대학'으로서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 혁신 대학'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후 지속해서 대학혁신을 추진해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교육부) 연차 평가 최우수(A) 등급,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교육부) 연차평가 우수 대학 등 교육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지역 명문사학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경남대형 하이테크-하이터치 학습모델 운영 및 학습자 중심 환경 정비

경남대는 집단교육 체제에서 개별학습을 지원하는 교수-학습 방안으로 하이테크-하이터치 학습 모델(High-Tech, High Touch Learning model)을 도입하고 있다.

학생은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된 동영상으로 선행학습과 반복 학습을 할 수 있으며, 대면 수업에서는 수강생 개인의 성취 수준에 맞춘 하이테크형 개별학습과 하이터치형 프로젝트·발표·토론 등의 심화학습을 진행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고 있다.

AI·SW융합대학·보건의료정보학과 신설 코딩교육 강화

경남대는 미래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는 IT·인공지능·AI·스마트기술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A등급 2021년 교원임용시험 107명 합격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전국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등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이다.

경남대 사범대학은 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A등급(최우수)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2021학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도 총 107명의 합격생을 배출, 지방 명문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맥을 당당히 이어가고 있다.

진로-학업 통합 지원시스템으로 개인 맞춤형 진로지도 및 지원

경남대는 학생 스스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학업 계획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는 자기구조화학습환경(SOLE)을 구축·운영한다. 학생포털시스템과 매 학기 개설하는 진로 교과를 연계해 학생들의 자기구조화학습을 지도·지원한다.

또 LINC+사업단과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학습의 장을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리빙랩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연계 과목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

